

일제강제동원 2차소송 승소... 유족 “늦었지만 다행”

대법 “일본제철·미쓰비시 배상”
소송 10년만... 원고유족만 생존
유족 “왜 이렇게 늦었나 아쉬움”
일본 “한국이 알아서 대응할 것”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제3자변제 해법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5000만원씩 총 11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일본제철 소송은 제기된 지 10년9개월만, 미쓰비시중공업은 9년10개월 만이다. 이들 소송은 2012년 이춘식 씨 등이 낸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현재 일본제철 사건 원고 7명은 모두 사망했다. 미쓰비시 사건의 경우 원고 4명 중 당사자 3명은 사망하고 유족 1명만이 남았다.

재판부는 일본 기업 측이 주장했던 ‘소멸시효 만료’와 관련 “2018년 전원합의체



21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제철 사건의 원고인 박해경 씨 외 6명은 1942~1945년 사이에 일본제철 가마

이시 제철소, 아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이다. 미쓰비시 사건 원고 양영수 씨 외 3명은 1944년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초등학교 교장의 회유와 중용 등에 의해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고, 원고 오철석 씨의 누나인 오길애 씨가 강제노동 중 도난카이 대치진에 의해 공장 건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3~27세였다.

판결 직후 유족 및 일제강제동원시민모

임,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소송이 지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소송에 참여한 고 양영수 씨 딸 김정옥 씨는 “이렇게 잠깐이면 될 것을 법원이 왜 이렇게 끌었느냐”며 “우리 어머니가 판결 보고 돌아가셨더라면 한이라도 풀고 가셨을 텐데 못 보고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배상금 지급은 요원하다. 일본 기업은 앞

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놔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가)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 정부가 대응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본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도록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고 또다시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꾀하려 한다면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8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 마약사범 153명 무더기 검거 성과

4월 TF팀 결성 8개월 활약

광주 서부경찰(서장 문병훈)이 최근 8개월간 마약사범 15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경찰은 지난 3~4월 쌍촌동, 광천동 등 광주 서구지역 원룸 배전합과 화단 틈 공간에서 날개 포장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 전담팀(TF팀)을 편성했다.

김태철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TF팀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수사한 결과,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등 153명(구속 35명)을 검거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중간 유통한 마약을 유통한 A 씨도 구속 송치했다.

TF팀 팀장 최진현 경위는 “A 씨가 전국 각지를 돌며 마약류 판매를 위한 직 작업을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모텔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

함을 보였다”며 “하지만 한 달에 1~2회 모친 주거지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 잠복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 차 내부에는 1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엑스터시,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 일회용 주사기, 소분 도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추궁 끝에 단순 투약자가 아닌 중간 판매책임을 밝혀내 구속 송치했다.

강주비 기자

‘여자친구 살해’ 파면 전직 해경에 징역 25년 선고

법원이 딸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최모(3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연인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시기에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3시20분부터 5시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최씨는 해당 상가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와 크게 다투다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뒤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6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과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다. 송민섭 기자

영원한 봄의도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마을 '달랏'

KAC 무안국제공항
PACIFIC AIRLINES
A Member of Vietnam Airlines Group

꽃길만가

무안 ↔ 달랏

직항

999,000원~

3박4일(월) 오전출발
무안-달랏 07:05~10:05
달랏-무안 11:45~18:40

3박5일(목) 오전출발
무안-달랏 20:10~23:10
달랏-무안 22:40~05:35

기간 : 2023년 9월 28일 ~ 2024년 3월 28일

달랏 [중계] ✈
999,000~

달랏 [고품격] ✈
1,099,000~

달랏 [나트랑/무이네]
1,049,000~

달랏골프 [54홀]
1,499,000~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